

역사자원을 획득하는 일,  
미래를 읽어내는 힘의 원천!

# 사학과

Department of history



<http://history.khu.ac.kr/>





---

##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는 곳, 사학과

사학과는 한국전쟁의 상흔이 아직 짙게 내리고 있던 1955년 창설되었습니다. 역사학과 문화유산에 대한 탐구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류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관을 갖춘 문화인 양성을 사명으로 하며 역사학계를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다양한 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전공은 한국사, 동아시아사, 서양사, 고고학 4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 전공의 교수진은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학과는 우수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한국사·동아시아사·서양사·고고학의 입문 및 시대사에 대한 종합적인 탐구를 통해 역사교사와 각 분야사를 전공할 예비 연구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역사문화 분야에서는 인류가 남겨놓은 각종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통해 문화 콘텐츠의 개발, 문화, 문화 영상제작 등 문화산업에 종사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한국사·동아시아사· 서양사·고고학의 유기적인 연결

사학과는 역사학과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세계사적 시야를 갖춘 문화인의 양성을 위해 크게 기초로서의 역사학 분야와 응용으로서 역사문화 분야로 구별하여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한국사·동아시아사·서양사·고고학의 입문 및 시대사에 대한 종합적인 탐구를 통해 역사교사와 각 분야사를 전공할 예비 연구자 양성을 목표로 하며, 역사문화 분야에서는 인류가 남겨놓은 각종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통해 문화 콘텐츠의 개발, 문화, 문화 영상제작 등 문화산업에 종사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공 교과 과정을 살펴보면, 계열교양으로 한국사입문, 동아시아사입문, 서양사입문이 개설되어 각 전공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수업을 진행합니다.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각 전공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 단일전공(사학과 심화전공)과 복수전

## 교직 과정부터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까지

공(사학과 및 타학과 동시 전공)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역사콘텐츠제작과 활용, 박물관학, 유적조사론 등의 강의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학과에는 교직 과정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직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 초 교직과정 이수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사학과에 배정된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정원은 모두 4명입니다(입학 정원의 10%).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는 이수학년에 따른 교직 과목 및 기타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4학년 1학기에 실시하는 교육실습 과정을 이수하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은 사학과만의 차별화된 장점입니다.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과 연계하여 인턴십(Internship, 현장실습)과정이 운영되고, 학생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학생회가 조직·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 답사를 진행하고, 해외 연수 프로그램과 다양한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광범위한 분야로 진출하는 사학과 졸업생들

사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문학과 진로탐색 시간에는 직업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며,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들을 초빙해서 다양한 경험담을 통해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문과대학의 커리어 코칭데이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적네트워크의 확보 및 정보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학과는 문화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역사 지식은 문화정보라는 인식하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인간의 경험·가치관·문화유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전공분야를 살려서 역사학과 인적 학술분야의 교수·연구원 또

는 중등학교 교원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광범위한 지식산업분야-언론계·출판계·예술계·문화계·관광관련 산업체 등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전문적인 역사학자가 되는 길은?

학부과정을 마친 후 전문적인 역사학 연구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학과 대학원은 한국사, 동아시아사, 서양사, 고고학 전공으로 나뉘어 있으며, 문과대학 융·복합 과정으로 통합의료인문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BK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대학원생 모두가 BK사업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란 “세계 제조업도 고급가구 세공업도 아닌, 보다 나은 이해를 향해 나가는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보다 나은 이해를 하는 노력은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더해가는 오늘날 무엇보다도 필요한 능력일 것입니다. 시간적·공간적인 거리 속에서 펼쳐진 과거의 사실들을 인과관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를 읽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인간은 과거의 역사에 구속되는 존재이며 과거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역사자원을 획득하는 일은 무한한 가능성을 여는 것으로 어떤 분야에서도 든든한 토대를 구축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학과는 우수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